

# 달빛내륙철도 건설 촉구...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도 나섰다

### 경실련 등 광주·전남 61개 시민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공동 성명 발표

### “문 정부 공약,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마가 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청와대의 ‘통 큰 결정’만 남았다. 대구와 광주의 정치권·지자체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서를 내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영호남 상생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 61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내륙철도는 산업·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활발한 영호남 교류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비용편익 측면으로만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서축의 교통인프라 부족은 결국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국책사업이다”고 밝혔다. 또 “영호남 사·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계획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하지 않는다면 영호남 화합과 동서교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대구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사·도지사 6명이 단절된 영·호남을 잇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공동으로 호소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조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예산과 수익성

을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는 달빛내륙철도는 빛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국가철도망의 선공급은 경제성에 따른 선

택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생존 방안이자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질박성의 문제”라며 “경제성이라는 행정편의주의 뒤에 숨은 정부 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과 지역 균형발전의 물이해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위해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역이 한목소리로 20여 년간 요구해온 ‘동서 화합의 대통합’ 노선이다”며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광주, 대구,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앞줄 가운데)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주거급여 청년층까지 확대해야”

### 연일 2030 정책 청년 표심잡기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공식 출범을 통해 자신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주거급여 제도 전면 시행, 헌법에 ‘주거권’ 신설 의지 등을 밝히며 청년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거급여가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되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거 급여는 올해 서울 거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2만원(중위소득의 45%) 이하에게 최대 31만원 지급된다. 청년층에는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82만원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군가산점 대신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데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여성

에게도 사회출발자금을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등 2030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지금도 청년을 위한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14㎡)은 주자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이라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불평등의 축 무너뜨리겠다”...정세균 대권 세몰이 시동

### 여 친위조직 광화문포럼 기조연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불평등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차기 대권을 향한 세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내달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첫 공개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여권 내 친위조직인 광화문포럼에 정 전 총리가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이날 행사엔 민주당 지도부 등 당내 의원 약 60명이 모습을 드러내 두터운 지지세를 과시했다. 정 전 총리가 총리직 퇴임 후 여의도를 찾은 것 역시 이날이 처음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앞서 내놓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립 제도에 이은 세 번째 정책 공약이다.

정 전 총리는 “과거에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했다”며 “그런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면 적절히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후보들이 합의해 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건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신경이야 당연히 쓰이지만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고 밝혔다.

에 맞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당 지도부가 최선의 속고와 검증,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과거에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했다”며 “그런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면 적절히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후보들이 합의해 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건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신경이야 당연히 쓰이지만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광재 “궤도 진입중”...대선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11일 “궤도에 진입 중”이라며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의원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권 출마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시대 과제가 버겁고 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다”며 “최근 세종대왕의 리더십 관련 책을 봤는데,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대왕이 과거 조세 개혁을 위해 17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별 시범 실시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 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일류 국민을 서포트(뒷받침)하면서 채우면 되겠다”고 밝혔다. 시대 과제로는 “국민에

게는 행복한 삶, 대한민국에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강인하고 존경받는 나라”라며 “경제와 외교가 7-80%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마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백신·반도체 등이 워낙 중요한 문제라, 이 이후에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원도 지역구인 송기현·허영 의원, 우상호·권인숙·김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며 ‘이광재 화이팅’ 구호를 외쳤다.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행사에 ‘강원도 미래 전략 발표’라는 제목을 썼지만 사실 이광재 의원의 대선 출마 첫걸음이라고 알고 왔다”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로서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담론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